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한다

교직 과목을 듣는 사람들에게 비고츠키는 익숙한 이름이다. 교육학 관련 모든 개론서에서 비고츠키는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와 대조되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주장한 인물로서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 부모, 교사 또는 또래 등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에 있어서는 근접발달영역과 비계설정을 효과적인 학습방법으로 활용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만약 박동섭 교수님의 교육학개론을 듣지 않았다면, 비고츠키의 이론을 교육학의 효과적 학습방법론 중 하나로만 알고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 학기동안 교수님께서 다방면에 걸친 접근과 비유를 통해 한국에서의 비고츠키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예들려 설명해주신 덕분에 지금은 비고츠키 아이디어의 왜곡실태 뿐 아니라 이론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학문풍토와 사회적 인식까지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비고츠키 아이디어의 왜곡의 원인은 무엇이며,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할 방법은 없는 지에 대해 고민해보자.

비고츠키 아이디어 왜곡의 원인과 반복의 이유

비고츠키 아이디어의 왜곡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지난학기 나의 ‘비고츠키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것으로 보다 명백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내가 비고츠키 이론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것은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과의 비교를 통해서였다. 비고츠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비고츠키가 ‘개인의 인지발달이 아동의 독립적 탐색에서 시작되며, 인지발달이 개인적 과정에서 사회적 과정으로 발달되는’ 피아제의 이론과는 달리 인지발달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며, 사회적 과정이 개인적, 심리적 과정으로 발달된다고 배우게 되었고, 무엇보다 비고츠키가 학습이나 마음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개인(피아제), 사회(비고츠키)라는 이분법적 인식은 마치 비고츠키가 마음과 학습에 있어서 그 마음의 주체인 인간의 의지는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처럼 생각되었고, 그래서 비고츠키이론이 인간의 수동성을 전제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비고츠키의 아이디어가 단순한 효과적 수업테크닉으로서의 학습방법론이나 심리학의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틀을 벗어나 좀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나의 시야를 가로막았던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서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학습자, 인간의 마음과 그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문화의 양방향적 소통, 상호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한 인간과 그 인간이 발 딛고 서있는 사회문화라는 현실이 따로 떼어내져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근원이 사회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도 나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도대체 교육학 시간에 왜 인간과 사회문화의 연관성을 배우는지, 즉, 이러한 이론이 교육학, 효과적 학습방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 지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다. 여타 다른 교재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방식처럼, 이론을 배우면 그 이론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용되는가를 배우는 데 익숙한 나로서는 그러한 비고츠키이론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가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나의 관심사와는 달리 교수님은 직접적으로 비고츠키를 언급하시기 보다는 마리상의 요리이야기라던가, 닭의 울음소리 등, 재미는 있으나, 크게 효과적 교수학습법과는 관계없는(물론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의 의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

들이 비고츠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야기들을 수업에서 다루었다. 비고츠키에 대한 이론이 머릿속에는 인지되었으나, 그것이 마음으로, 내 안의 틀을 바꾸는 ‘눈’으로 까지 확장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수업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효율성과 실용성이라는 틀을 통해 이론을 재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너스 과제로 제출하게 된 ‘Historic Vygotsky’의 번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유레카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다. 비고츠키가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문장을 번역하는 순간, 나는 왜 그토록 비고츠키의 이론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중요한지와 함께, 그동안 내가 비고츠키를 사회문화, 역사적 맥락에서가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이론 그 자체로만 여겨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비고츠키가 마음의 근원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있고,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문화마다 다른 상대적이고 특수적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이제는 비고츠키 이론을 통해 내가 서있는 이 곳,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문화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결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은 비고츠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힘든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틀로 그 이론을 바라보았는가, 좀 더 확장해서 말하자면, 그동안 나의 생각은 어떠한 사회문화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였는가에 대해 반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라는 개인을 통해 2009년 대한민국은 어떠한 가치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지를 역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비고츠키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좁게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그리고 넓게는 심리주의, 환원주의, 이분법, 개인, 자기강조의 근대 서구문화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비고츠키 이해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고츠키에 대한 이해는 비고츠키를 단순히 교육학 또는 심리학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려 했을 때, 그 정수를 파악할 수 없다. 앞서 밝혔듯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는 내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의 변화를 강요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고츠키의 아이디어가 인식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의 틀로 바라보았을 때, 잘못 이해되어질 소지를 가지고 있다. 비고츠키의 이론처럼, 사람은 누구나 대상을 바라볼 때 매개를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각자가 어떠한 사회문화에 속해 있고 그 사회문화가 어떠한 가치를 우선하는가에 따라 대상을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비고츠키 이론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영복이 그의 글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람(여기서는 대상이라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자)을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의 주체가 또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전통의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이론에 대한 각자의 결론, 즉 각자의 진실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전제하는 가치들과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특수성이 어떻게 비고츠키의 이론을 왜곡시키는 데 일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비고츠키 아이디어 왜곡의 첫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연구자들의 안이한 연구태도일 것이다. 한국의 비고츠키에 관련된 논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있다. 비고츠키의 이론 중 ‘근접발달이론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며, ZPD는 아동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수준과, 더 유능한 동료나 성인의 도움 하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간의 격차이고, 따라서 학습은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사물을 경험함으로써 지식을 획득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재화이자 학습이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중재가 학생들의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구절이 바로 그것

이다. 한국의 수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절을 인용하여 논문 속에서 자신의 ‘효과적 학습론’에 관한 요지를 납득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의 구절이 비고츠키의 이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고, 문장 그 자체가 의미하는 정수, 즉 비고츠키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맥락을 제거한 ‘말’뿐인 이론이라는 것이다. 비고츠키가 말한 사회문화의 중요성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 영향이 아니며, 그가 말한 사회,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학습자와 학습을 도와주는 교사 또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

만이 아니며, 한 개인이 대상, 즉 세상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모든 관계, 인간이나 사물, 사회문화 또는 사회문화를 둘러싼 역사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것이며, 그가 말하는 매개 mediated는 이러한 개인과 사회와의 co-relation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비고츠키는 어째서인지 아동심리학자이며, 사회적 측면만을 강조한 사회적 구성주의자일 뿐이다. 비고츠키를 연구한다는 학자라면 적어도 비고츠키가 쓴 원문을 읽으려고 노력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비고츠키를 인용한 다른 문헌들과 논문들에서 글을 가지고 오기 전에 그 글이 담고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즉, 그 이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논문을 쓰는 소위 ‘박사’, ‘석사’들은 그러한 자기성찰의 과정 없이 잘못된 이해만을 자기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이한 학문풍토에서 처음에 잘못 해석된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여전히 어떠한 수정의 여지도 없이 그대로 자기 복제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안이한 학문풍토보다 더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우리사회가 가진 근대성 때문이다. 근대성이라고 하면 너무 큰 개념이라 어렵다면, 근대성을 상징하는 과학, 자기발견, 타자, 민족과 국가, 등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전제들을 생각해보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구 문명은 경제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그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과학을 우상시하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해 다각적으로 시도하였다. 자연에 대한 관찰과 원리추론을 기본으로 하는 과학, 특히 자연과학의 특성상, 과학적 방법은 대상을 객관화, 대상화할 수밖에 없고, 대상을 객관화하여 ‘객관적’으로 실험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은 그 대상을 대상이 나타나게 된 현실을 무시하고, 대상 그 자체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학주의는 결과적으로 자연과학의 영역 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영역으로 까지 확장되어 개체화, 대상화, 객관화 될 수 없는 대상인 인간의 마음까지 인간에게서 떼어내어 따로 측정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결과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발달로 이어졌다. 문제는 과학의 발달이 부수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학문의 현실과의 유리, 즉 이론과 현장을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론적으로만 다루어지는 학문의 세계에서 객관성은 지향해야 할 방법론이며, 보편성은 과학이 추구할 궁극의 가치가 되어버렸다.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개인이나, 사회, 국가나 문명을 우월하다, 또는 열등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과학적 방법론이 처음 나타난 서구문명이 동양이나 아프리카 등의 문명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고, 근대화가 발전과 인류 번영의 방법인 것처럼 잘 못 여겨지게 되었다. 또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숭상하는 서구 근대문명은 그 부작용으로 과학에서의 실험대상인 개체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문제의 책임을 모두 개인 자신의 불찰로 돌리는 심리주의, 환원주의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구 근대문명의 인식론은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 ahistorical하게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을 historical하게 보여주며,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비고츠키 아이디어의 소개 및 확대 가능성은 없는가?

이러한 이유로 소위 비고츠키를 연구했다는 교수조차도 비고츠키의 아이디어의 정수를 무시하고 그의 말만을 맥락에서 떼어내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고츠키의 아이디어가 왜곡되는 것은 단순히 몇몇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전제하는 가치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비고츠키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길은 요원하지가 않다. 앞서 나의 비고츠키 이해과정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나의 인식의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기에 이 사회는 너무나 경직된 학문풍토와 일방적이고 이분법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비고츠키 아이디어의 왜곡이 수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수정의 조건은, 비고츠키의 아이디어가 전제하듯이, 개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그 자체에 대한 고려가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고츠키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제한성과 특수성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한 자기의 생각과 견해를 넓혀나가기 어렵다”는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내가 발 딛고 서있는 2009년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 시대를 만난 사상”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하나의 이론이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현실을 바꾸는 혁명적인 힘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역으로 사회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가 발 딛고 서있는 강물은 어떠한 강물인가에 대한 반성이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비고츠키의 이론을 통한 사회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근대성에 대한 인식이 이 사회에서는 너무 확고하다. 그러므로, 역으로 지금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비고츠키이론의 전개 바탕이 될 것이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그러한 현실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전제를 따진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구적 전제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에 따라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할 때, 즉, 우리가 가진 사회문화라는 전통의 틀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고츠키를 접근할 때,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는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심리주의나 환원주의, 자아개념과 근대라는 우리사회의 틀을 가시화할 수 있을 때,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를 왜곡하게 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하나 둘씩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문화적 전제 중 수정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는 이론과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일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구 근대화의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론은 현실과 이론을 유리시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이론과 현장은 현실과 유리된 실험실/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사회문화, 그리고 보편성(영원한 아이)/ 특수성, 상대성(역사적 아이)으로 구별되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대상을 객관화, 개체화하게 만들고 따라서 심리주의, 과학주의가 판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에서 제거된 현장성, 즉 이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사상이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의 통일, 현실적 조건에 대한 고려’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서의 현장성

복원은 각각의 현장이 가지는 다이내믹한 상황성, 즉, 구체적이며, 조건적이며, 특수한 현장의 특성상 과학의 객관성, 보편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할 것이고, 과학의 객관성, 보편성에 대한 회의는 문화적 상대성과 다름에 대한 이해, 결과적으로는 근대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현장성에 대한 개념은 비고츠키의 이론과 연관되어,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내가 속한 사회문화 안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어지는 존재라면, 나의 문제 또한 나 자신만 바뀌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즉, 나 자신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나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나의 '실천'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즉 근대성과 서구문명에 대한 반성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근대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의지,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누구의 자유의지이며, 어떠한 자유와 독립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다. 입으로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인간은 사회와 문화, 역사, 국가, 민족과 유리된 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특정 시공간 속에 존재하여 관계한 사람, 사회, 국가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홀로 책임지고, 홀로 행하라는 자유의지와 독립의 개념은 아무리 봐도, 근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로 점차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와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배층이 그러한 문제를 덮기 위해 사회, 권력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고, 내가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내가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모든 이유에 대해 단순히 '너'자신의 문제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배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때로는 소위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 지배층이 하듯이 이에 대한 비난과 여론이 조성될 때마다 권력층과 국가는 그러한 이론이 인간의 개성과 다양함을 제한하고, 결국 사회에 메인 존재로 보는 운명론 내지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발달되었다는 울가미를 씌운다. 한 개인의 잘못이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 어떻게 사회, 운명결정론과 마르크스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비판이 왜 인간을 수동적이고, 환경에 종속되는 존재로 보는가? 인간이 사회문화, 즉 역사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은 인간이 홀로 무엇과도 관계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다.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빈부격차가 커져가는 사회, 보수적이고 독재화되는 정치, 부속품 취급이나 규격화된 '국민'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개인과 사회가 관계가 없는데 왜 귀찮게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바꾸려할 것인가? 그에 비해 인간을 특정한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며,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야할 것이다. 다시 하자면, 인간을 역사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둘러싼 주변을 자각하고, 변화시키고, 적응하려고 하게 되며, 그런 의미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실천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개인을 독립적 존재로 보는 관점을 우위에 두고,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수동적, 공산주의적, 운명론적 입장으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독립, 자유라는 것을 환경, 의지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독립과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그리고 그러한 독립, 자유라는 개념을 정립한 것은 누구인가? 여기에 바로 지배적 이데올로기, 즉 집권층의 의도가 담겨있고, 그들이 만든 독립과 자유를 우리는 반성적 회의 없이 받아들여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며, 앵무새처럼 '자유의지, 개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는 역사적 존재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유와, 개인, 독립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권력을 얻게 된 것이 근대부터,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또는 국민국가 등 국가를 강조하는 시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지배적 경제체제로 등장한 시기라는 역사성을 생각하면, 지배층이 주장하듯 개인이 '자유, 독립'을 획득하라는 말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주의로부터의 자유, 즉, 거대 기업과 이윤추구, 빈부격차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의지를 가지라는 말이고, 역설적이게도 이로 인해, 국가와 자본주의, 즉 우리를 둘러싸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권력층을 부정하라는 말이 된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시선을 돌리고, 그도 안 되면, 이분법적 사고로 몰아가는 것이 지배층의 교묘한 수단이고, 권력유지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와 독립, 의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확연하게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세상과 실제 세상은 얼마나 다른 것인가, 내가 어떠한 틀 푸코식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감옥' 속에 살아왔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지배층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가 현실과 역사에서 떨어져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인간이 특정 시공간 안에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역사적 존재'라면, 당연히 조금 더 나은, 행복한 시공간에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당연한 바램으로부터, 내가 나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개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회적 '실천'은 사회를 바꾸는 일인 동시에 나를 바꾸는 일이 되고, 반대로 나의 개인적 '실천' 또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나와 사회의 역동적인 상호연관성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비고츠키가 전달하려고 했던 아이디어의 정수일 것이며, 비고츠키의 아이디어가 왜 교육학, 심리학이라는 학문의 좁은 틀을 벗어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회문화와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사회문화의 관계성에 대한 깨달음은 데카르트이후 계속 되어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성 중심, 개인중심의 근대성, 서구문명의 틀을 깨고,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한다'는 대화성, 즉, 나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 '너'가 필요한 관계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 너가 필요한, 개인의 사회와의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더 이상 나와 너가 경쟁하는, 효과적 수업테크닉과 응용론이 활기치는, 인간의 상품화가 판치는 차가운 곳이 아닌 나와 너가 함께 공존하는,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며,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고츠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할 때 교육과 학습,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을 평가하여 비계설정하고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닌,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 문제 해결활동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 두 사람 간에 따뜻하고 즐거운 협동, 즉 마리스의 요리하기와 같은 즐거운 시간보내기가 일어나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실천으로서 이해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